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RCEP 발효 반 년간 발효국 13개로 확대

- RCEP 협정이 발효한지 반 년이 넘었으며 회원국은 발효 초기 10개국에서 현재 13개국으로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입 업체 및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음
- 베이징시해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7억 위안(약 1,500억원) 규모의 수출입 화물이 RCEP 우대정책 혜택을 받았고 수출업체의 6.9억 위안 규모(약 1,344억원) 화물이 수입국에서 687만 위안(약 13.4억 원)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았음
- 특히 2대 무역대국인 중국-일본 간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무역 증진 효과가 뚜렷하며, 현재 베이징시에서는 일본이 최대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국으로 되었음
- 광저우 바이윈(白云) 국제공항은 중국내 3대 항공허브 중 하나로 RCEP 국가간 23개 항공노선을 운영 중이며, 일본의 가전, 동남아의 과일, 한국의 뷰티제품 등은 RCEP 발효에 힘입어 중국 소비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있음. 상반기 바이윈 국제공항을 통해 수입한 RCEP 국가 화물은 1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9.8% 급증하였음
- 광저우해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RCEP 협정을 통한 수입 규모는 29.1억 위안(약 5,669억 원)으로 총 5,898만 위안(약 115억 원) 규모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주요 수입 품목은 열연강판(热轧板材), 엔진부품, 과일 등으로 주로 일본, 태국 등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난징시해관 관계자는 방직, 화학, 자동차, 신에너지 등 분야 중점기업 대상으로 경쟁우위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핵심기술 수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cysec/newmain/yc/jsxw/202207/06/t20220706_37836597.shtml

2 中, 경공업 부가가치·이윤 등 발전 가속화

-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21년 경공업 기업의 자산은 전국 공업기업 자산 총액의 13.4%에 불과하지만 부가가치는 16.9%, 매출은 17.5%, 이윤총액은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경공업 제품 수출은 총 9,000억 달러로 100개 품목 생산량이 세계 1위를 기록함
- 올해 1~5월 배터리, 완구 등 업종의 부가가치는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8가지 중점 경공업 제품 수출은 1,887억 달러로 9.3% 증가하였으며 가방, 신발, 완구 수출은 20% 이상 증가함
- 최근 몇 년간 공업정보화부는 해마다 업그레이드 및 혁신 소비재 지침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431가지 경공업 제품을 망라시켰으며, 품목이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로 스마트 단말기, 스마트 가전 등은 중국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음
- 다음 단계로는 헬스, 육아, 실버 등 수요에 맞추어 건강기능식품, 영유아용품, 노인용 실버가전 등 분야를 발전시킬 예정

자료원 : 인민일보

http://www.ce.cn/cysc/zgjd/kx/202207/06/t20220706_37837494.shtml

3 中, 신에너지차 보유량 1,000만 대 돌파

- 중국 공안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중국내 차량 보유량은 총 4억 600만 대이며, 이 중 자동차 보유량은 3억 1,000만 대, 신에너지차 보유량은 1,001만 대로 집계됨
- 신에너지차 보유량은 전체 자동차 보유량의 3.2%이며, 이 중 순수 전기차가 810만 대로 전체의 80.9%를 차지하였음
- 중국의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7년 연속 글로벌 1위로, 2021년 코로나19 영향 및 보조금이 인화된 상황에서도 생산량과 판매량이 1.6배 증가하여 각각 350만 대 이상을 기록함
- 2022년 신에너지차 보조금이 더욱 인화되어 연료차와 같은 시작점에 놓여 있으며 향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하여 전고체 배터리, 차세대 전기구동시스템 등 핵심기술을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과학기술일보

http://www.ce.cn/cysc/ny/gdxw/202207/07/t20220707_37840858.shtml

4 中 전기차 수출량의 40%는 유럽으로... 신에너지차 시장 무서운 성장세

- 유럽 국가에서 신에너지차 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중국은 글로벌 최대 신에너지차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올해 1~5월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11% 증가한 200만 대를 돌파함
- 올해 4월 비야디는 3월부터 연료차 생산을 중단한 최초의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되었고, 창청차 동차(长城汽车) 산하의 창정자동차(长征汽车)는 6월 5일부터 연료차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
- 중국내 신에너지차 관련 업체는 총 53만 개사이며, 이 중 최근 3년간(2019~2021년) 신규 등록한 업체가 28만 개로 연평균 44.3%의 증가세를 보였음
- 현재 중국내 10여개 자동차 업체가 유럽에 신에너지차 모델을 수출하고 있음. 2021년 중국의 전기차 수출량은 배로 증가한 55만 대이며, 이 중 40%를 유럽에 수출함. 중국의 전기차는 유럽 전기차 판매량의 10%를 점하고 있음

자료원 : 중국매일경제망

<http://www.nbd.com.cn/articles/2022-07-05/2351913.html>

5 최근 2년간 하이난 리다오(离岛) 면세점 판매액 급증... 일평균 매출 240억 원

- 하이난성 하이커우 해관에 따르면 하이난 리다오 면세쇼핑 신청책(关于海南离岛旅客免税购物政策的公告) 실시 2년간 면세품 판매액은 906억 위안(약 18조 원), 판매량은 1억 2,500만 건, 쇼핑객은 1,228만 명을 기록하였음
- 현재 리다오 면세점 경영업체는 5개사, 리다오 면세점은 10개로 증가하였고 면세품 일평균 쇼핑액은 1억 2,400만 위안(약 241억 원)으로 정책 조정 전보다 257% 성장하였음
- 하이난 리다오 면세쇼핑 신청책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면세쇼핑 한도를 매년 1인당 3만 위안(약 583만 원)에서 10만 위안(약 1,94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일 상품 구매한도 8,000위안(약 155만 원)과 구매수량 제한을 취소하였음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2022-07/08/content_25927769.htm

6 中, 전기밥솥 업계 첫 번째 '국가표준' 시행

- 중국 전기밥솥 업계의 첫 번째 국가표준인 '전기밥솥(GB/T 40978-2021)'가 2022년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음
- 이번 발표된 '국가표준'은 전기밥솥 분류, 모델명, 실험방법, 검사규칙, 표시, 포장, 운반, 저장 등 관련 요구를 포함하고 전압 250V 이하의 가정용 혹은 유사 용도의 전기밥솥에 적용. 에너지 효율, 밥솥 성능, 사용기간, 소음, 코팅막 내구성 및 내부식성, 냉열기능 등에 대해서도 규정함
- 중국은 전기밥솥 시장규모가 크고 관련 기업수가 많지만 기업 간 기술력 차이가 현저하고 제품도 품질, 성능, 사용기간, 체험 등 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함. 이번 '국가표준'의 제정은 중국 전기밥솥 산업의 발전 수준과 종합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가전업체 메이디(Midea) 관계자는 전기밥솥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로 더 높은 기술표준을 필요로 하며 친환경·에너지절감·저탄소 제품이 업계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전기주간

http://www.ce.cn/cysc/zgjd/kx/202207/06/t20220706_37837522.shtml

7 中, 아동용 화장품 시장 빠르게 성장... '식품급' 등 표기 불가

- 중국에서 매년 5,000만 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화장품을 사용하며 아동용 화장품 시장규모가 50억 위안(약 9,708억 원)에 근접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임(* 아동용 화장품이란 12세 이하 아동들이 사용하는 청결, 보습, 자외선 차단 등 기능의 화장품)
- 아동용 화장품의 인기와 더불어 일부 업체는 아동용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불법적으로 호르몬제와 항감염 약물을 추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식품급' 화장품이라고 홍보하거나 '색조화장품 완구'를 판매하여 아동들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음
- 아동용 화장품 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자협회, 보건협회 등은 공동으로 △3세 이하 아동은 '색조화장품' 사용에 부적합 △아동용 화장품 구입시 반드시 '샤오진둔(小金盾, 아동용 화장품 전문 표시)' 표시 확인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각 사용 중단 △'식품급' 화장품이란 시중에 존재하지 않음 △'아동용 화장품'과 '화장품 완구'를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 등의 5가지 주의사항을 발표함

자료원 : 중국여성신문

http://fashion.ce.cn/news/202207/08/t20220708_37844445.shtml

8 中, 여성 언더웨어 시장 34조 원 규모로 빠른 성장세

- 중국 여성 언더웨어 브랜드 코스모레이디(COSMO LADY)와 첸잔산업연구원에서 공동 발표한 '중국 여성 언더웨어 백서'에 따르면 2021년 여성 언더웨어 시장규모가 1,769억 위안(약 34조 원)으로 성장
 - 첸잔산업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중국의 여성 언더웨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2030년 4,953억 위안(약 96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 중국방직품상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의 언더웨어 산업은 발전이 비교적 늦고 소비자의 충성도가 높지 못하며 브랜드 홍보가 부족한 등의 원인으로 산업 집중도가 낮아 선도기업은 시장 점유율 제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평가함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2-07-04/A1656916596499.html>

9 中, 철광석 수입가 톤당 110달러로 하락세

- 중국철강공업협회에 따르면 철광석 수입가가 톤당 110달러로 연속 수일간 하락세를 보임
 - 업계 관계자는 철강 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하반기 철광석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분석함. 하반기 철광석 수입량은 5억 6,700만 톤으로 상반기 대비 2,600만 톤, 전년 동기대비 190만 톤 증가하고, 중국내 철광석 생산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 한편 철강업체 이윤 하락, 점검수리 횟수 증가, 생산량 제한정책 등으로 올해 생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00~3,0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만 톤 감소할 경우 하반기 생철 생산량은 상반기 대비 2,600만 톤, 전년 동기대비 98만 톤 감소한 4억 1,120톤으로 추산됨

자료원 : 중국증권보

http://www.ce.cn/cysc/ny/gdxw/202207/06/t20220706_37836498.shtml

10 中 자본시장, '바나듐 레독스 배터리(VRB)' 분야 주목

- 바나듐 레독스 배터리(VRB)가 에너지저장 산업에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자본시장에서 '바나듐 레독스 배터리(Vanadium Redox Batter)'와 '레독스 플로우 전지(Flow Redox Cell)' 등이 이슈로 부상했음
- 중국절강대학교 판허린(潘和林) 교수는, 바나듐 레독스 배터리는 현재 화학에너지 저장의 대표적인 신기술 중 하나로 산업 전망이 양호하며 시장점유율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 모 증권분석가는 "바나듐 레독스 배터리는 안정적이고 수명이 길며, 8시간 이상의 에너지저장 프로젝트에 적합하고 재생에너지, 도시전력망, 원격제어 전력공급, 무정전 전원공급(UPS) 등 다양한 영역에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평가함. 선도기업인 판강판타이(攀钢钒钛)는 관련 제품 연간 생산량이 4만 톤으로 중국 및 세계 1위이며, 2021년 기준 생산량이 각각 32%, 21%를 차지하였음
- 중국 국가에너지국에서 6월 말 발표한 '전력 생산 사고 예방 25가지 중점 요구(2022년판)'에서는 대형 전기화학 발전소의 삼원 리튬 배터리, 나트륨-유황 배터리 등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이로써 바나듐 레독스 배터리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음. 연구기관은 2025년 신규 증가한 전기화학 에너지 11.4GW 가운데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VRB) 비중을 30%로 예상했음
- 바나듐 레독스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은 초기 투자 비용이 3.8위안(약 730원)/Wh에서 6.0위안(약 1,200원)/Wh 정도로 높은 것이며, 전문가들은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원가가 낮아질 것으로 분석함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cysc/ny/gdxw/202207/11/t20220711_37851816.shtml